

□ 연구 논문

#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유형

전요섭(Ph.D., 성결대학교 · 교수)

## I 여는 글

Millard Sall은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 여부는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sup>1)</sup>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성은 최근 기독교상담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논란의 주제로서<sup>2)</sup>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전혀 다른 두 학문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sup>3)</sup> 심리학은 인간의 구원을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이며 신학이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 둔다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이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학문임을 알 수가 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Victor E. Frankl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반드시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은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4)</sup> 이유는 따라서 이 두 학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5)</sup>

Wilhelm Wundt(1832-1920)가 1879년에 독일의 라이프찌히(Leipzig)대학교에서 얻은 연구기금으로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설

립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태동시킨 이후 지금까지 신학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신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신학에서도 심리학을 세속 학문으로 배제하려고 해 왔다. 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진보적(자유, 신정통주의 등) 입장과 보수적(보수, 근본주의 등)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처럼 상담학의 입장에서도 심리학을 얼마나 받아들이는 것인가하는 것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입장은 심리학을 향해 문을 열고 그 이론을 신학에 받아들여려는 것이며 보수적 입장은 기독교내에 세속 학문인 심리학이 받을 불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이런 성향에서는 심리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을 애써 막아 왔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神學)과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心理學), 이 두 학문은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른 성격의 학문 분야로서 통합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 입장을 극단적으로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해답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신학에서는 세속적인 학문인 심리학을 들먹거리서는 안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일반 학문과 신학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 또 그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세속 교육체제 속에 있는 정규학교 초, 중, 고 대학교에 다니지 말아야 하고 세상과는 담을 쌓으며 기독교 학교만을 세우고 세상 과목들을 완전히 제거하며 성경을 비롯해서 기독교 수학, 기독교 국어, 기독교 과학, 기독교 생물학, 기독교 음악, 기독교 실업만을 배우는 체제를 수립해야만 한다. 대학에서도 기독교 의학, 기독교 화학, 기독교 이비인후과, 기독교 산부인과, 기독교 간호학, 기독교 경영학, 기독교 영문학, 기독교 사회복지학, 기독교 건축학, 기독교 정치학 등을 만들어서 그것만을 배워야 할 것이다. 또 지나치게 심리학에 대한 문호를 활짝 열어 놓으면 기독교상담학이라는 특성은 배제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학문이 서로 영향을 주고 접촉점을 이루고 있으며 신학에 심리학이 도입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학이 심리학에게 준 영향보다는 심

리학이 신학 분야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학문간의 접촉의 징후는 신학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sup>6)</sup> 신학 내에 일부 자리를 차지하려고 비집고 들어오는 심리학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반응은 극단적인 태도를 비롯해서 그 수용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다. 먼저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부류가 있다.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학 내에 심리학이 자리 잡는 것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입장도 있는데 심리학이 은연중에 교회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심리학이 과학적 학문으로 급성장하고 관련 분야들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를 엄선하여 일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침해를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이다.

기독교상담학을 연구하기에 앞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어떤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이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한다면 다가오는 심리학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고찰은 기독교상담학의 선행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 두 학문간의 통합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John D. Carter와 Bruce Narramore의 이론을 기초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산발적으로 있어 왔지만, 그 입장을 분명히 주장한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Carter와 Narramore가 비교적 건전한 입장에서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던 인물로서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두 학문간의 연구 유형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합의 Paradigm을 제시하려고 한다.<sup>7)</sup>

## II. 펴는 글

### 1. 신학과 심리학의 연구 유형

신학과 심리학 간의 연구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가졌던 심리학자들은 종교적 현상과 경험에 관심을 갖고 종교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과 신학 또는 신앙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려고 하였으며 양자의 통합을 모색하려고 했다. 또한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던 신학자들은 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를 신학에 응용 및 적용을 통한 통합을 시도해 왔었다.

Alvin Plantinga에 의하면 지금까지 신학과 심리학의 상호관계와 그 입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1) 통합론(Thomists) 2) 분리론(Averroists) 3) 흡수론(Augustinians)의 입장이 있다고 주장했다.<sup>8)</sup> 그러나 Carter와 Narramore는 Plantinga의 분류보다 다소 구체적으로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1) 대립적 유형(against model) 2) 종속적 유형(of model) 3) 병행적 유형(parallels model) 4) 통합적 유형(integrates model)등으로 나누었다.<sup>9)</sup> Lawrence Crabb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 신학과 심리학은 분리되었으나 동등하다. 2) 신학과 심리학의 학문적 요소들은 새로운 결과를 위해서 함께 섞어야 한다. 3) 신학만이 인간의 문제와 욕구를 다루는데 필요할 뿐, 심리학은 불필요한 학문이다. 4) 심리학 중에서 신학과 일치하는 내용은 어떤 개념이나 방법이든 활용하고 그것들을 성경의 권위 하에 놓아야 한다.<sup>10)</sup> Stanton L. Jones는 통합의 입장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1) 윤리적 통합(ethical integration) 2) 관점적 통합(perspectoval integration) 3) 과학을 인본주의화 또는 기독교화하는 통합(humanizer or Christianizer of science integration) 등으로 나누었다.<sup>11)</sup> Collins도 이에 대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용어의 첫 자를 따서 INDEX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1) 통합(integration) 자세 2) 무효화(nullification) 자세 3) 대화적(dialogical) 자세 4) 논쟁적(eristical) 자세 5) 혐오적(xenophobic) 자세 등으로 분류했는데 이들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또는 신학을 기초로 심리학을 본 견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들의 분류간에는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는데 Carter와 Narramore의 견해가 비교적 합리적이며 개념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입장에서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했다고 볼 수 있다.

### 1) 대립적 유형

대립 유형은 두 학문간에 본질적 갈등이 존재하여 서로 호환될 수 없으며 통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Collins에 의하면 이것은 신학과 심리학이 서로 낯선 학문으로 인식하고 혐오하면서 대립을 견지하는 ‘혐오적 자세’라고 명명했다.<sup>13)</sup> 또한 이것은 서로 대립적으로 논쟁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논쟁적 자세’라고도 할 수 있다.<sup>14)</sup> Plantinga의 경우 대립론을 일컬어 Averroists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 두 학문 간의 분리 및 상반적 견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verroists라는 용어는 아라비아 출신의 철학자 Averroes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그는 이중 진리론(二重眞理論)을 주장한 학자였다. 즉 신학에서 참인 명제가 과학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과학에서 참인 명제가 신학에서는 거짓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판 Averroists란 자신의 신앙과 학문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다.<sup>15)</sup> 이 대립적 유형에는 구체적으로 세속적 대립 유형과 신학적 대립 유형 등 두 가지가 있다.<sup>16)</sup>

#### (1) 세속적 대립 유형

세속적 대립 유형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만이 진리를 찾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며 신학과 심리학은 필연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두 학문간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두 학문은 서로 다른 시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된 견해들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입장은 과학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시도하는 것외의 자세는 부적당, 비과학, 구세대적 발상으로서 학문의 퇴보라고 인식하고 있다. 종교란 아동이나 원시인에게 환영받을 만한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미숙함과 비이성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본다.<sup>17)</sup>

Albert Ellis는 대립 유형을 지지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는 종교에 가까울수록 과학적인 태도와는 멀어진다고 보았으며 종교와 과학이 어울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공통적

인 견해는 과학만이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며 종교는 그러한 과학적 사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sup>18)</sup> 또한 세속적인 대립 유형의 특성은 종교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다. 이것도 역시 세속적 대립 유형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전형적인 입장이다. Ellis는 종교는 초월적 힘에 대한 의존이라고 정의했지만 종교는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보았으며 종교란 자아 학대를 한 뒤 죄책감을 덜어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므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자아 학대를 요구하는 정신병적 상태라고 보고 또 종교는 점차 의존적 성향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시각은 단지 Ellis만이 가진 것은 아니었다.

Eli Chesen도 종교가 개인과 사회를 억압하며 근거없는 신경증적 죄책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종교는 정신건강을 해롭게 하고 정상적인 정서발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9)</sup>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의 개념 역시 쓸모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지옥과 같은 부정적인 실체로 사람들을 환기시키는 일은 흥미 위주의 책이나 공포 영화를 만드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sup>20)</sup>

세속적 대립 유형의 또 다른 가정은 사람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근원, 개인의 부적응 등은 사회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어려움들은 오직 심리적, 사회적 치료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에는 영적인 요인이 전혀 없으므로 영적인 해결책은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 즉 신앙을 통한 신경증적 영향을 제거하는 것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sup>21)</sup> 대개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 또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는 성경에는 인성이론의 이해나 심리치료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진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sup>22)</sup> 이러한 입장은 신학에서도 심리학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는 심리학에 대한 철저한 대립적 태도야말로 성경에 충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 (2) 신학적 대립 유형

신학적 대립 유형은 세속적 관점과 극명한 대비를 나타낸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 역시 상호협조의 가능성은 생각조차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대개 보수주의계열의 기독교상담학자
 들은 심리학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대감정을
 느끼거나 아예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입장으
 로는 일반심리학에 기초한 심리치료를 ‘사단적’ ‘완전히 세속화된
 것’ 또는 ‘구제불능’인 것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sup>23)</sup> 세속적 대립론
 자와 마찬가지로 신학적 대립론자들 역시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
 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성이나 과학적인 검증보다 계시가
 진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학설들을 주장
 하면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지만 이것은 무익한 노력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P. Billheimer와 같은 사람은 기독교 정신
 의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
 이라고 했다.<sup>24)</sup> Charles Smith는 1975년에 발표한 “신학 속에 무슨
 심리학이 들어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심리학이 신학 속으로 침투
 해 오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것은 “순수한 말씀의 쫓(보수신학, 성
 경)을 뿜게 만들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Dave Hunt는 심리학을 가
 리켜서 일찍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현대사상 중 가장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사상이라고 했다.<sup>25)</sup> Hobart Mowrer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 주신 장자권을 인본주의와 심리이설의 팔죽 한 그릇과 바꾸었
 다고 한탄했다.<sup>26)</sup>

신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
 도, 그리고 성령과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이며 심리학이라는 것은
 그 학문의 대상이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 전혀 다른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비교될 수 없는 성(聖)
 과 속(俗)이었듯이 신학에서 본 심리학의 위치는 극단적으로 속(俗)
 으로서 취급되어 왔었다. 뿐만아니라 신학을 연구하는 바른 자세란
 반심리학적(Anti-psychological) 태도와 오직 독단적으로 성경과 신학
 만을 연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로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심리학은
 신학의 범주에서 무시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심리학
 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학문인데 사람의 마음을 다스

리고 변화시키는 이는 바로 성령의 작용이므로 사람간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심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 구차하게 이 학문을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어 왔기 때문에 심리학을 신학과의 유관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밖에 두었다.

또 신학적 대립 유형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Jay E. Adams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성경을 모든 신앙과 인간 행동을 위한 오류없는 표준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sup>27)</sup> 대립 모델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진리의 원천은 하나 뿐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비성경적 주장들에 의해 시행되는 치료와 정신건강 요법들은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고 본다. 또한 성경이 모든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은 심리치료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가 되며 이 분야에 매우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8)</sup> 세속적 대립론자들이 기독교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해를 주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적 대립론자들도 심리학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세속적 대립론자들은 기독교가 사람들을 억압하며 지나친 죄책감을 자아낸다고 걱정하는 반면 신학자들은 오히려 심리학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죄책감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바로 볼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치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인간의 부적응이 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상담과 성경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sup>29)</sup> Adams는 정신질환자들과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 뇌 손상 같은 신체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의 문제는 자신의 죄 때문이었으며 최악된 행동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sup>30)</sup>

또한 Charles R. Solomon은 심리치료의 목적은 사람들을 더욱 강해지도록 돕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심리치료는 이러한 하나

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며 성령의 사역을 가로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1)</sup> 인간의 심리치료를 염두에 두었을 때, 자신이 습득한 상담적 기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 앞에서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sup>32)</sup> 또 Adams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정신의학(psychiatry)의 독점물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즉 성경에는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세가지 영역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것이 사탄의 활동이든지, 개인적인 죄의 문제든지, 유기적 질병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sup>33)</sup>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나서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상담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문제는 의사에게,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에게, 영적인 문제는 목사에게라는 등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목회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Adams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기초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개념을 갖지 않았으며 심리학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신학적 대립 유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학과 심리학의 상호접촉에 대해 세속적 대립론자들과 거의 흡사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립 유형을 통해서 서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sup>34)</sup>

## 2) 병행적 유형

이것은 신학과 심리학의 개념을 상호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지만 실제적인 통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Collins에 따르면 이것은 ‘무효화 자세’에 해당된다. 즉, 신학과 심리학은 함께 맞출 필요가 없으며 오직 양립만 있을 뿐이라는 태도이다.<sup>35)</sup> 여기서 심리학은 타당성 있고 필수적인 전문 과학 분야로 인식되며 신학은 유용한 개인적, 사회적 현상으로만 인식된다.<sup>36)</sup> 병행적 유형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신학과 심리학 쌍방에 대해서 긍정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신학과 심리학 모두의 중요성을 긍정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병행 유형은 대립 유형이나 종속 유형에 비해

상당히 진보된 개념이다. 또한 이 유형은 신학과 심리학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시도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려깊은 심리학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다.

병행 유형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는 고립적 입장이다. 신학과 심리학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중복될만한 중요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는 무관심의 입장이다. 병행 유형의 두 번째는 상관적 입장이다. 여기서는 신학과 심리학의 일부 개념들의 상호관련과 제휴를 모색한다. 가령 초자아(super ego)는 양심(conscience)과 동등한 것으로, 이드(id)는 탐욕(lust), 육욕(flesh)은 옛 본성(old nature) 등에 대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Gordon Allport는 신학과 심리학에서 표현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정신적 고통의 기원, 본질, 치유 등에 관련된 많은 점에 있어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며 강조점과 기술적 측면은 다를지라도 심리치료와 종교의 관계는 바람직한 상호 보충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sup>37)</sup> 여기서 Allport는 신학과 심리학이 실제로 동일한 진리를 언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단지 표현하는 용어가 다를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타협적 견해가 대립 유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통합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 (1) 세속적 병행 유형

세속적 병행 유형(the parallels model [secular version])은 심리학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지받는 것이다. Frederick Thorne은 심리학 연구에서는 타당성의 입증을 위해 과학적 방법에 주로 의존해야 하지만 신학과 종교 역시 과학의 영역이 들어설 수 없는 나름의 인정할만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sup>38)</sup> Thorne의 입장은 신앙 지향적인 영적 상담과 과학지향적인 인성 상담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하며 영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애초부터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sup>39)</sup> Thorne은 상담에서 종교의 위치에 대해 논하지만 고립적 입장을 확실히 표명한다. 과학적 근거 위에 형성된 상담은 종교 지향적 상담과 분리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지식과 문화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로 밖에 보지 않았다.

Linn과 Schwarz 역시 고립적 접근 태도를 암시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신학과 심리학이 서로 엇비슷하다는 사실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었다. 정신의학의 발달과 종교와의 관계는 기타 의학의 지류들과 정신의학간에 맺어진 병행 관계 정도의 수준일 뿐이라고 이해했다.<sup>40)</sup> 종교와 정신의학, 이 두 분야가 엄정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서로 다른 측면을 폭넓게 융화하는 것도 아니지만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이들이 신학이나 성경을 보는 견해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속적으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제시하는 책이며 성경이 인간의 도덕적인 안내를 위해서 실제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든 심리학적 상태들과 장애들을 다루는 교과서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41)</sup> 병행적 유형에서는 신학과 심리학의 상호입장에 대해서 명료화시킴으로써 서로를 인정하지만 의미있는 교류가 있다기 보다는 서로 무관심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 (2) 신학적 병행 유형

신학적 병행 유형(the parallels model/ sacred version)에서 강조되는 점도 신학과 심리학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입장 역시 세속 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학문의 입장을 명료화하여 상호작용보다는 불가침의 입장을 표명한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신학적 고립 유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기독교인 상담자나 심리치료자들 중 다수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이 접근을 채택한다. 그들은 훌륭하다는 세속 기관에서 학문을 수련한 사람들로써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 배운 일반 심리학 유형을 적용한다.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학구적이고 전문적인 성과들에 접목하려고 하지만 대개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하거나 심리학의 소양이 부족하여, 정립하지도 못하고 비판하지도 못하는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병행 유형의 기본 입장은 신학과 심

리학 사이에 본질적으로 상호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신학과 심리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두 분야가 취급하는 영역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병행 유형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기껏해야 공통적 의미를 나란히 나열할 수 있는 두 개의 구별된 실재를 다룬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이 가정의 나열은 통합은 아닌 것이다.

### 3) 종속적 유형

이 유형은 신학 내에 건전한 심리학 또는 신학적인 심리학을 찾으려는 시도가 전개된다. 여기서는 대립 유형에서와 같이 두 영역 간에 조화될 수 없는 차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심리학 사이에 상당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영역간에 개방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 상당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42)</sup> Plantinga의 경우 종속적 유형을 ‘Augustinians’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흡수론을 의미한다. 즉 신학의 입장에서 심리학을 흡수하자는 견해이다. Augustinians는 Thomist처럼 신학과 학문 사이의 우호성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입장은 한 가지 원칙에 다른 원칙을 흡수해야 한다는 ‘흡수 통합론’을 주장한 것인데 이 Augustinians와 종속적 유형과 용어는 동일한 것같이 느껴지나 그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sup>43)</sup> 그러나 어느 학문을 기초로 어느 학문이 종속되고 흡수되는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세속적 종속 유형

세속적 종속 유형(the of model [secular version])에서 순수한 신학적 개념이나 그 특성은 무시되며 초자연적 현상(supernatural phenomenon)은 무조건 거절된다. Philip Rieff는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심리치료의 승리」라는 책에서 종교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심리학자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으므로 만일 누구든지 치료에 성공하려면 심리치료자들을 영적 인도자로 삼아야 한다고까지 말함으로써 성경과 신앙 등을 비롯한 종교

전체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sup>44)</sup>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종속 유형론자들은 흔히 건전한 신학과 불건전한 신학으로 구분 짓는다. 따라서 성경에는 특수한 심리학적 의미와 이론들이 깃들여 있으며 결국 심리학적 진리의 일부를 밝혀주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건전한 신학만 진보적 입장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 사상을 의미하고 불건전한 신학은 보수적이고 특히 권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 즉 죄, 지옥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을 의미한다.<sup>45)</sup> 그래서 건전한 신학만이 그들과 제휴할 수 있는 신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ric Fromm은 이러한 견해를 가진 대표적 인물인데 무신론 인본주의자인 그는 종교와 정신분석의 상호관계와 공통기반을 찾으려고 했다. Fromm은 종교가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입장에서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성경의 초자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신화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Fromm이 말하는 종교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자유, 사랑, 진리를 촉진한다는 점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sup>46)</sup> 이에 대해 Mowrer의 종속적 입장은 Fromm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신경정신증(psycho-neurosis)과 정신증(psychosis)은 죄와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히 인간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어떤 형태의 행동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야말로 파괴적이고 최악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7)</sup> 또한 Karl Menninger는 자신이 정의하는 죄는 도덕적 규율이나 개인의 양심을 위배하는 행동이며 자신과 이웃에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며 파괴를 초래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규정했다.<sup>48)</sup> Mowrer와 Menninger가 정의한 죄의 개념은 종속 유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적 측면은 거절된다. 죄가 의미하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에 대항하는 공격이 아니며 지옥이란 악인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입장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학적 입장에서 죄라는 용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파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2) 신학적 종속 유형

신학적 종속 유형(the of model [sacred version])은 기독교의 초자연적 요소를 부정하며 신학의 입장에서는 진보적인 신학 성향을 띠는 것이다. 신학적 종속론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 구속적 측면보다 보편적 측면을 강조하고 과학적 주장과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sup>49)</sup> 신학적 종속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심리학파들의 입장을 신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며 신학화된 심리학을 목회 현장에서 치료의 수단으로 보급한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심리학적 적용에 적합한 다양한 성경구절들을 선택적으로 해석한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일부 심리학파의 문헌에 적용되기도 하고 특별한 이론 체계의 하나로 해석되기도 한다. 기독교상담학이라는 것이 태동하게 된 배경도 신학적 종속 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리학 또는 심리치료를 목회의 방법으로 적용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1905년부터 시작한 임마누엘 운동(Emmanuel movement)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이 운동은 미국 보스턴에서 조직되었는데 주도자는 성공회 신부인 Elwood Worcester로서 그는 “교회가 필요하다면 과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들과 협력해서 심리치료를 교회 내에서 시작한 자이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임상 목회 교육(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 생기면서 신학은 심리학을 불러온 것이다.<sup>50)</sup> Anton T. Boisen 등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목사들이 효과적으로 병든 자와 낙심한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심리학이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심리학을 신학에 불러오기 시작하였다. W. Temple주교는 우리는 지금 심리학에 기초한 신학이 필요하며 서서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전환은 많은 고통을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sup>51)</sup> 이러한 관심이 급속도로 발전한 결과, 최초로 기독교상담학(pastoral counseling)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심리학과 손을 잡게 된 운동들은 공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보수신학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발로 심리학을 배격하게 된 것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학에서 심리학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저항하는 대립적 유형을 지속하고 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심리학을 싫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세속적 학문에 의해 희석되어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신학과 심리학을 자유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연계하려는 다양한 시도 속에는 종속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종속적 입장을 고수하는 학자 가운데 Seward Hiltner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신학적, 심리학적 개념을 연계하려는 시도 가운데 원죄 개념을 거부하고 자신의 심리학적 신념에 더욱 완벽하게 들어맞는 환경적 입장을 취하였다.<sup>52)</sup> 여기서의 원죄 개념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후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가된다는 의미는 사라지고 사회의 조절 과정으로만 표현된 것이다. 죄가 사회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종 인간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지만 Hiltner의 분석은 자신의 심리학 체계에 적합하도록 성경을 재해석한 것이다. 그의 언급 속에서 많은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는 있으나 그의 방식은 성경을 심리학에 속한 문헌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본래적으로는 신학, 종교적 맥락에서 출발하다가 그 지지자들이 개인적인 신앙적 주체를 상실하고 세속적 종속 유형화 되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sup>53)</sup>

종속 유형은 대립 유형보다는 다소 유용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 대한 정통적 견해를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신학과 심리학 사이에 의미깊은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보이지만 성경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희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마치 일정한 모양의 틀에 반죽을 넣어 과자를 굽는 것과 같다. 성경이라는 반죽 재료는 심리학이라는 틀에 의해 일정한 모양이 형성되며 틀 밖으로 흘러나온 반죽은 버려지는 것이다. 이같은 과자틀 방식은 종속 유형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54)</sup> 여기서의 성경을 심리학에 국한시키고 계시와 초자연적 특성을 배제함으로써 기독교와 신학의 특성을 제

외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통합은 실제적으로 모순이며 의미가 없는 것이다.

#### 4) 통합적 유형

신학과 심리학의 연구 유형 가운데 마지막은 통합적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통합 자세’라고 부른다.<sup>55)</sup> Plantinga는 이것을 ‘Thomists’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용어 그대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시도하는 입장이다. 이 용어는 13세기 카톨릭 신학의 기틀을 놓았던 Thomas Aquinas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Averroists의 주장을 거부하며 한 영역에서의 진리는 다른 영역에서의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상호우호적이며, 친밀한 관련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친밀하고, 우호적인 입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학문은 서로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았다.<sup>56)</sup>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의 대표자는 Donald G. Barnhouse인데 이는 신학과 심리학의 학문적 입장을 두 개의 기차 길(선로)에 비교하였다. 단순히 이 비유만을 인식한다면 병행적 유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처럼 이해되는데 병행적 유형은 고립과 무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개념은 기차의 궤도 중, 만일 한쪽 선로를 없앤다면 기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다른 한쪽 선로인 심리학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고 두 학문간에 서로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없으면서 동시에 결코 대립이나, 이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의 방법론과 자료들은 종종 구별되기도 하지만 통합론자들이 추구하는 개념은 두 학문을 포괄하여 연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두 분야 개념들을 희생하지 않는 통합 원리를 찾는 것이다. 표현을 달리한다면 이는 조화론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Rodney Vanderploeg에 따르면, 기독교 심리치료와 심리학에 기초된 비기독교 심리치료간에는 차이가 없다. 그 목표도 같고 방법도 같다. 다만 치료 자체의 차이라기 보다는 치료자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기독교 심리치료는 기독교인이 하는 것이고 일반 심리치료는 심리학 관련자들이 하는 것

이라고까지 주장했다.<sup>57)</sup>

#### (1) 심리학적 통합 유형

심리학자들은 종교가 개인 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은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계시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심리학에 기초한 통합론자들은 성경이나 신앙 현상: 기도, 방언, 회개 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만 삼아 고작 종교심리학의 연구 범위를 넓힐 뿐이다. 성경,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므로 과학에서 발견한 진리와 성경의 계시를 완전하게 결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중심한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신학적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통합하려는 학자들은 없다.<sup>58)</sup> 그러므로 세속 심리학의 입장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 (2) 신학적 통합 유형

신학적 통합 유형에서는 신학과 심리학은 서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 두 학문은 근본적으로 서로 분리된 분야가 아니라, 진리의 통일성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므로 모든 학문은 하나의 설명으로 모아질 수 있다고 본다. Jones & Butman에 따르면 이를 건설적인 통합(constructive integration)이라고 부르면서 심리학과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있는 것들을 발견하여 대화에 임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같은 단계는 사상의 취사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사상들의 좋은 점은 골라내어 정립시키고 나쁜 점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9)</sup> Lawrence J. Crabb은 만일 세속 심리학의 이론을 기독교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들의 개념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걸러낸다면 세속 심리학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세속 심리학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0)</sup> 또 William Hulme도 통합 유형을 표방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는 종속 유형이나 병행 유형에서 성경을 심리학화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sup>61)</sup> 과학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으려는 것은 대

단히 위험한 태도이며 신학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에 관한 독특한 통찰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과학의 발견들을 무시해서도 안되면 양자의 유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신학적 통합 유형이라고 보았다.<sup>62)</sup> Paul Tournier도 역시 진리의 연합과 통합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 유형의 기본 가정은 인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sup>63)</sup> 인간 존재에 관한 모든 사상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기원과 행동, 심리 등의 문제들을 여러 견해들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공통적 주제로 두 학문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펴는 자들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며 기독교 심리치료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본질과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sup>64)</sup> 신학과 심리학 연구가 외형적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본 주제와 가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론, 부적응, 욕구, 개인 또는 집단적 죄, 죄책감 화해 등의 공통적 과제가 있음을 동의할 것이다. 특별한 기술에 접근함에 따라 견해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담의 방법과 내담자 이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상담 기술을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65)</sup>

## 2.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Paradigm

‘통합(統合, integration)’이라는 개념은 둘 이상의 학문이 서로 관여(interdisciplinary)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마치 두 가지의 기계를 완전히 분해해서 하나의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신학과 심리학을 분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학문 체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 1) 통합 과정의 문제점

일부 심리학자와 신학자들이 서로의 통합을 위한 시도를 기피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론의 의미가 약화, 희화, 억압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재해석하고 성경에 심리학적 개념을 강요하는 유형에 회의를 느낀다. 심리학자들 역시 심리학을 별 의미없는 학문이라는 암시가 내포된 통합적 시도를 거절한다.<sup>66</sup> 따라서 통합이라는 명칭은 좋으나, 통합을 위해서 신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심리학의 가치가 성경보다 더욱 인정받는 것은 신학의 본질을 잃게 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Van Kaam은 진정한 통합의 과정과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태도는 겸손과 학문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주장한 했다. 그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도 그 해답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 학문에 대한 겸손의 태도를 가질 때 상대의 견해와 새로운 시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태도 없이 추구하는 통합에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학문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고 주시하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여 상충되는 문제를 쉽사리 거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sup>67</sup> 이러한 입장에서는 “Sigmund Freud가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며 또한 Freud가 전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며 그 이론이나 철학의 기초가 어떠한 모든 심리학 이론으로부터 기독교 심리학의 응용 및 적용 가능성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처럼 느껴지나,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심리학의 위치를 성경과 버금가는 위치로 끌어올리는 시도로 이해되며 심리학과 교류를 위해서는 성경의 위치를 상당히 끌어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복음주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성경이 이용당하는 것만 같아 용납되기 어려운 견해이며 자유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부터는 통합 의지에 대해서 소극적이며 약화된 견해라고 따돌림을 받아 결국 양자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견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신학적 통합론의 문제는 신학과 심리학을 지나치게 동등하게 인식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신학적 통합론은 두 분야 모두의 방법론, 분석 수준 등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 원리를 찾는 것인데 이는 용어처럼 건전한 것도 아니며 간단한 것도 아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학문적 진보도 기대할 수 없고

서로가 초점을 잃게 되는 것이다.

## 2) 새로운 통합의 유형: 흡수 통합론

이것은 신학의 입장에서 심리학을 흡수하는 견해이다. Plantinga에 따르면 이 명칭은 ‘Augustinians’ 이라고 하는데 이는 Thomist처럼 신앙과 학문 사이의 우호성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한가지의 원칙에 다른 원칙을 흡수해야 한다는 ‘흡수 통합론’을 주장한 것이다.<sup>68)</sup> 이것은 앞서 Carter와 Narramore가 분류한 ‘신학적 종속 유형(the of model [sacred version])’과 명칭으로는 유사하지만 신학적 종속 유형은 기독교의 초자연적 요소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경의 권위보다는 이성의 권위를 보다 높게 평가하며 성경의 계시와 초자연적 특성을 심리학에 국한시키거나 배제하는 경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칭과는 다르게 그 내용은 복음주의 신학적인 종속 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신학적 통합이라는 용어도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심리학은 신학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고 고작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종교 현상의 심리학적 이해정도 인데, 신학적 입장에서는 신학 스스로가 학문적 검손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의 수준으로 내려앉아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놀아나는 수준은 본질적으로 통합이 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Plantinga가 주장한 ‘Augustinians(흡수 통합론)’야말로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연구에 적합한 paradigm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독특성을 상실하고는 통합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학을 지키면서 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들을 취사선택하여 신학에 유익을 가져오는 범위 내에서 심리학을 흡수하는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심리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의 도입, 즉 내담자를 관찰하는 것이라든지 상담의 기법 등에 있어서 기독교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심리학은 인성론을 배우고 인간을 다루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원리와 과정 등에 대해서 목사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심리학과 그 각론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신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높은 영적 지원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인간의 관심과, 갈등의 해결을 비롯해서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훈련된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면담을 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될 때 좀더 효과적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sup>69)</sup>

또한 신학생과 목회자가 상담에 효과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상담자로부터 면담(interview)이나 상담(counseling)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sup>70)</sup> Bonnell은 천주교회의 고백성사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기독교회에 고백성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사제가 되기 전에 많은 고백성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제가 친절하고 감정이입적이며 이해심이 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에 대한 느낌을 받고 자신이 고백성사를 받는 사제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의 훌륭하고 합리적인 사제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신학생 때에 많은 상담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sup>71)</sup>

Collins도 ‘통합(integration)’은 신학과 심리학의 중도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두 학문간의 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매우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72)</sup> 이러한 흡수 통합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창시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진리 추구에 있어 이성, 계시, 과학적 방법들은 각기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반은총론에 근거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특별계시와 창조 세계를 통한 일반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므로 신학과 심리학적 발견 사이에 일치점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sup>73)</sup>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의 심리도 함께 창조하신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시 33:15)

### Ⅲ. 맺는 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paradigm은 신학의 입장을 고수하고 성경의 내용을 파손시키지 않으면서 심리학과 심리치료의 학문적 결과 가운데 신학이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적용,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David G. Benner가 1986년 *Psychology and the Christian Faith*라는 책에 기고한 “Psychotherapy & Christian Faith”라는 글에서 미국에는 심리치료 방법이 대략 250개 이상이 된다고 했다.<sup>74)</sup> Benner는 1992년에 출판한 책에서 “현재 미국에서 심리학에 관하여 출판된 도서만 300여권이 상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상담 이론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미국에는 300여 가지의 이론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75)</sup> 또 Collins도 상담심리에는 최소한 100여종의 이론과 10,000여 가지의 상담 기술들이 있다고 주장했다.<sup>76)</sup> 이처럼 유일한 심리학 또는 상담학,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 이 모든 심리이론을 다룰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런 다양한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다는 것은 기독교상담을 포기하는 것이다. F. H. Garrison은 질병에 대해서 다수의 다른 치료법이 행해진다는 것은 그 병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했다. 어차피 이렇게 다양한 심리이론을 다 따르기도 어려운 것이라면 기독교상담의 입장에서는 성경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이론 수립과, 성경적 방법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신학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못한 인간론과 그 심리적인 부분은 심리학의 학문적 성과를 일반은총론으로 보고 신학적 비판을 통해 취사선택된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다.

\* 후 주 \*

1) Millard Sall, *Faith, Psychology and Christian Maturity*, 김양순 역,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175.

2)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11. 이 주제는 미국의 경우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와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등의 정기 간행물에서 매우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3)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는 자연적으로는 통합되지 않을 것을 의식적으로 연결 또는 연합, 종합을 이루도록 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신학과 심리학을 합쳐서 새로운 학문분야인 ‘심리신학(Psychotheology)’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tanton L. Jones &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1), 19.

4) Vic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이봉우 역, 「의미에의 의지: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서울: 분도출판사, 1980), 146.

5) 여기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등의 개념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구원, 즉 정신적 질환, 환경, 고민,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6) 신학(theology)이라함은 신학의 학문분야 중에서 주로 실천신학(pastoral theology)을 일컬으며 그 중에서도 기독교상담학(Christian counseling)을 지칭하는 것이다.

7) John D. Carter는 New York에 있는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기독교 교육(M.A.)을 전공했으며, 철학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Denver Conservativ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전공(B.D.)했다. 1976년 심리학 연구학회의 상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미국심리학회와 복음주의 신학협회 회원으로 있고,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 (심리학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Bruce Narramore는 Pepperdine대학에서 석사학위(M.A.)를 받고 Kentucky대학교에서 철학박사(Ph.D.)를 받았으며, Fuller Theological Seminary와 Talbo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Narramore는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의 설립자이며, 1978년부터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를 했고, Western Association의 학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Rosemead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다.

8) Evans C. Stephen, *Wisdom & Humanness in Psychology: Prospects for a Christian Approach*, 이창국 역, 「기독교 심리학 입문: 지혜와 인간미를 지닌 심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35.

9)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관련한 모델들에 관한 입장은 H. Richard Niebuhr의 저서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and Row, 1951)에서 개요된 기독교와 문명 상호간의 역사 분석을 일반적으로 따른 것이다.

10) Lawrence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7), 31-56.

11) Stanton L. Jones, ed., *Relating the Christian Faith to Psychology*, “Psychology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Baker, 1986), 15-34.

12) Gary R. Collins,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Nashville: Abingdon, 1981), 역서 119-121.

- 13) Collins, 127.
- 14) Collins, 125.
- 15) Stephen, 35.
- 16) John D. Carter &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70.
- 17) Carter & Narramore, 91.
- 18) Carter & Narramore, 92.
- 19) Eli Chesen, *Religion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 (New York: Wyden, 1972), 26.
- 20) Chesen, 93.
- 21) Carter & Narramore, 95.
- 22) Jones, 173.
- 23) Stanton L. Jones &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1), 18.
- 24) P. Billheimer, *Don't Wast Your Sorrows*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77), 94.
- 25) Dave Hunt, *Beyond Seduction* (Eugeone, OR: Harvest, 1987), 130.
- 26) Mowrer, O. Hobart, *The Crisis in Psychiatry and Religion* (Princeton, NJ: Van Nostrand, 1961), 42.
- 27)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Baker, 1970), xx.
- 28) A number of Christians who work in the are of psychology assume that the Scriptures contain a clear model of personality development,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including techniques and goals. In other words, they assert the Bible contains a unique and comprehensive anthropology and theory of psychotherapy. Stanton L. Jones (ed.), *Psychology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Baker, 1986), 171.
- 29) ‘영적 상담(Spiritual Counseling)’이나 ‘영적 치유(Spiritual Therapy)’의 개념은 Charles R. Solomon이 주장하는 기독교상담학적인 개념인데 Solomon도 역시 신학적 대립론자라고 할 수 있다.
- 30) Adams, xvi.
- 31) Charles R. Solomon, *Handbook to Happiness* (Wheaton: Tyndale, 1971), 27.
- 32) Solomon, 32-33.
- 33)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The Practice of Nouthetic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3), 9.
- 34) 신학적 대립 유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본 연구에서 언급한 Jay E. Adams, Billheimer, Charles Smith, Charles R. Solomon 등을 포함하여 Bobgan, Hunt, McMahan, Kilpatrick 등을 꼽을 수 있다.
- 35) Collins, 122.
- 36) Carter & Narramore, 117.
- 37) Gordon Allport,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MacMillian, 1950), 109-110.

- 38) Frederick Thorne, "Principles for Personality Counsel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50): 471.
- 39) Thorne, 481.
- 40) L. Linn & L. Schwarz, *Psychiatry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Random, 1958), 9, 11.
- 41) Jones & Butman, 32.
- 42) Carter & Narramore, 103.
- 43) Stephen, 35.
- 44) Philip Rieff,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Uses of Faith after Freu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24.
- 45) Carter & Narramore, 104.
- 46) Eric Fromm, *Psychoanalysis and Religion* (New Haven, CN: Yale University, 1950), 9.
- 47) Hobart, 42.
- 48) Karl Menninger, *Whatever Became of Sin?* (New York: Hawthorn, 1975), 17-18.
- 49) Carter & Narramore, 108.
- 50) 이 C.P.E. 운동을 주도한 자들은 Anton T. Boisen을 중심으로 William S. Keller, Richard S. Cabot, Russell Dies, William Hulme, Seward Hitner, Wayne E. Oates, Carroll Wise, G. Stanley Hall, John Sutherland Bonnell 등이다.
- 51) J. G. McKenzie, *Psychology, Psychotherapy, and Evangel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0), vii.
- 52) 이 점에서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Pellagius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Seward Hiltner, *Theological Dynamics* (Nashville: Abingdon, 1972), 83.
- 53) Carter & Narramore, 111.
- 54) Carter & Narramore, 112.
- 55) Collins, 120.
- 56) Stephen, 35.
- 57) Rodney Vanderploeg, "Imago Dei as Foundational to Psychotherapy, Integration versus Segreg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 (1981): 303.
- 58)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의 미국 심리학자들을 개관해 보면 그들이 가장 비종교적인 학자들 가운데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 중 3분의 1은(다른 미국인의 10배에 가까운 비율) 하나님의 현존을 부정하였고 단지 3분의 1만이 스스로를 온건하나마 종교적이라고 토로했다. David G. Myers & Malcom A. Jeeves, *Psych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박원기 역, 「심리학」(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5), 27.
- 59) Stanton L. Jones,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1), 22.
- 60)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48.
- 61) Stephen, 98.

- 62) Carter & Narramore, 133.
- 63) Paul Torunier, *Guilt & Grace* (New York: Harper & Row, 1962), 67.
- 64) Stanton L. Jones (ed.), *Psychology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Baker, 1986), 170.
- 65) Carter & Narramore, 142.
- 66) Carter & Narramore, 138.
- 67) Van A. Kaam, *Religion and Personality* (New York: Doubleday, Image Books, 1968), 99.
- 68) Stephen, 35.
- 69) John Sutherland Bonnell, *Psychology for Pastor and Peopl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8), 16.
- 70) Bonnell, 19.
- 71) Bonnell, 19.
- 72) Collins, 120.
- 73) Carter & Narramore, 135.
- 74) David G. Benner and Stuart L. Palmer, "Psychotherapy & Christian Faith," Stanton L. Jones (ed.), *Psychology &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Baker, 1986), 157.
- 75) David G. Benner,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92), 7.
- 76) Gary R. Collins, *The Rebuilding of Psychology*, 문희경 역, 「크리스찬 심리학」 (서울: 요단출판사, 1996), 67.